열두번째 이야기

# 경기 솔솔~ 독서바람

## 이번에는 지역의 인문, 독서 자원을 만나며…

현장에서 소리 없이 독서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실천가들의 이야기를 담아 현장이 현장을 위한 자발적인 독서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모여 독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과정적 독서성장을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며 이러한 이야기가 바람타고 멀리멀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

세상과 通하며, 미래路 함께 가는 독서

###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교독서인문교육 ❋

**지역의 인문, 독서 자원을 발굴, 공유하여** 교육적인 활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학생들에게 배움을 확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 분야)로 선정된 지역의 다양한 문학적 자원을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지점들을 연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역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마다 가진 자원의 특성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적인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례임을 안내합니다.


- 지역의 인문, 독서자원으로 만나는 문인들의 발자취 ..... 1
- 독서토론수업-교육과정을 품다 ..... 9
-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도시)'를 만나다 ..... 18
- 지역의 독서토론교육프로젝트 [기획특집] ..... 20
- 지역에서 불어오는 생생한 교육 메시지를 담다 ..... 26


❄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합니다. 공유된 자료(사진, 이미지, 역사적 기록, 수업사례(안) 등)는 관련 기관, 개인의 동의하에 공유되는 자료이며, 도서목록은 수업에 활용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교육적인 목적 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자료를 공유해 주신 부천교육지원청과 성주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옥길중학교, 상동중학교, 계남고등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에 감사드립니다.

❋ 학교의 다양한 독서교육 사례가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bian21@korea.kr ☎ 031-820-0728

# 지역의 인문,
# 독서자원으로 만나는
# 문인들의 발자취

## 지역의 독서 자원으로 만나는 문인들의 발자취

'목일신' 작가와의 만남 ①

#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 작가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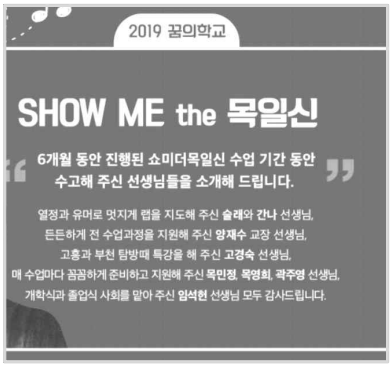
목일신 선생(호는 은성(隱星))은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입니다. 1913년 고흥에서 태어난 목일신 선생은 어린 시절 누구나 들어 봤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의 '자전거' 등 400여 편에 달하는 동시, 수필, 가요 등 문학작품을 남긴 아동문학가이며, 독립운동가 목치숙의 장남으로 1929년 광주학생 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운동과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이며,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국어 교사로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평생을 바친 교육자입니다. 1986년 10월 12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현 일신초등학교 뒤편)에서 향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천일신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학교명
※부천목일신공원: 부천 문화둘레길
※별빛마루도서관: 목일신 문학체험터 운영
※은성로: 그의 호를 따서 지은 부천시의 도로명
※목일신아동문학상: 아동문학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제정
※따르릉문화예술제: 목일신 선생님의 시문학 정신과 항일독립운동 전신을 기리는 예술제

## 주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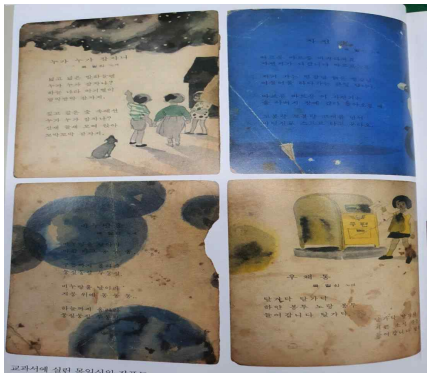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사람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 자전거는
울 아버지 장에 갔다 돌아오실 때
꼬불랑 꼬불랑 고개를 넘어
비탈길로 스르르 타고 온다오
따르릉 따르릉 이 자전거는
울 아버지 사오신 자전거라오
머나먼 시골길을 돌아오실제
간들간들 타고오는 자전거라오

## 작가 연계 지역 독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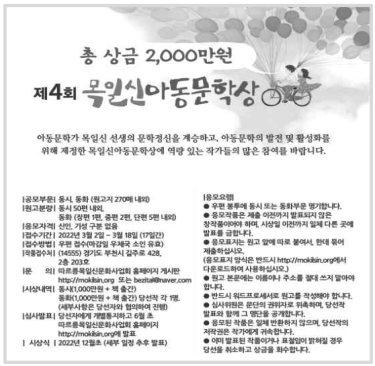

목일신 꿈의학교 운영

수주문학관 내 목일신문학체험터



교과서에 실린 목일신의 작품들(1965)

따르릉문화예술제 주최




목일신 아동문학상 운영

목일신 동시전집 삽화

## 공유 메시지

✿ 일제 강점기에서도 아름다운 동시로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을 잃지 않게 하신 목일신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서, 교사로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본인의 신념과 삶이 일치하는 목일신 선생님의 모습은 오늘날 학생들에게 **'큰바위 얼굴'**로서 표본이 됩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순수함을 간직하고 추억할 수 있는 문학적인 자산인 아름다운 동시, 동요 노래말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동요, 동시, 산문에 실어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어루만지며 지와 덕을 열어주신 것처럼…인문학적인 소양을 지니고, 지역의 문학 자원을 찾아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 지역의 독서 자원으로 만나는 문인들의 발자취

'양귀자' 작가와의 만남 ② •••

# 소시민들의 삶의 공간, 원미동 사람들

## 작가의 삶

양귀자(1955~) 선생은 대한민국의 소설가로 대학에 문예장학생으로 입학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문예 창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시대를 반영하여 유행을 선도하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나온 작품들은 대중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인 「원미동 사람들」은 실제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 개발로 인해 원미동으로 밀려나 살게 된 사람들의 삶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의 삶입니다. 원미동은 단순히 마을 이름이 아니라 1980년대 한국 사회 전체를 압축한 전형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연계 독서 자원

**원미동 사람들을 소재로 한 거리가 소설의 배경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어울마당 뒤에 조성되었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에는 장식벽과 분수대, 원미동 마을 모형을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부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 등장인물인 강노인, 원미동 시인, 김반장 등 3인의 각 브론즈와 벽천분수, 실개천, 거리안내·상징 대형문 2개 등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공유 메시지

전쟁의 상흔으로 폐허가 된 역사를 지나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 따라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의 모습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 뒤에는 도시개발로 점차 도심에서 밀려가는 소시민들의 희생과 이에 따른 고단한 삶의 모습 또한 현대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 책을 통해,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잃어버려가는 '인간성' 회복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지역의 독서 지원으로 만나는 문인들의 발자취

'변영로' 작가와의 만남 ③

# 조선의 마음, 민족혼의 되새김을 통한 국난 극복 의지

## 작가의 삶

변영로(1998~1961) 선생은 대한민국의 시인이며, 동아일보 기자,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호는 수주(樹州)*입니다. 1920년대의 감상적이며 병적인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시를 언어예술로 자각하고 기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해외에 발송하는 일을 맡았고 1924년 시집 「조선의 마음」으로 문단에서 주목받는 시인으로 부상했습니다. <폐허>의 동인이면서도 <백조> 류의 낭만성이 짙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건강한 서정성과 민족정신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서정적 가락과 민족애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작품인 <논개>로, 특히 붉음과 푸름의 색채 대비를 통해 민족에 대한 일편단심과 민족의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노래했습니다.

* 수주는 고려시대의 부천의 옛지명

## 주요 작품

### 논개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땁던 그 아미(蛾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 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魂)이야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논개에 대한 기록은 조선 광해군 때인 1621년 유몽인(柳夢寅)이 저술한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전하는데 "진주의 관기이며 왜장을 안고 순국했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전한다. 당시 임진왜란으로 왜군의 적장을 안고 남강에 떨어져 적장과 함께 죽었으며, 떨어져 죽은 바위를 의암이라 부르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다. 헌종(1846년) 당시 논개생향비를 건립하였다.

이미지 출처:doopedia.co.kr

## 지역 연계 독서자원

부천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한국 근대문학을 개척한 선구적 문필가인 수주 변영로 선생에 대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수주문학관은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장을 구성하였습니다. ▲1존 '천재의 고향, 펜을 들다' 에서는 부천이 낳은 한국근대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변영만·변영태·변영로 형제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존 '민족의 울분, 기록하다' 에는 가혹한 일제의 폭력 앞에 저항했던 수주선생의 가장 고난한 삶의 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3존 '지조의 문인, 마을을 울리다' 에서는 수주 선생이 남긴 가장 중요한 문학적 성과인 「조선의 마음」과 생애 가장 중요한 시편들로 채웠습니다. ▲4존 '수주의 흔적, 정신을 이어받다' 에서 '인간 수주'의 새로운 면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주문학상/수주 문학제

1918년『청춘(靑春)』에 영시「코스모스(Cosmos)」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인으로 활동하였으며, 1919년에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1920년에 신문학 초창기에 등장한 신시의 선구자로서, 압축된 시구 속에 서정과 상징을 담은 표현이 뛰어났으며, 민족의식을 시로 표현. 시인, 기자, 교육자, 문필가로 한국근대사의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1961년에 타계하였습니다.

## 공유 메시지

독립운동의 의지를 논개의 의로움에 빗대어 표현하여 국난극복의 의지를 표현했던 변영로의 삶과,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자신의 '호'로 표현하는 모습에서 올곧고 따뜻한 변영로 선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 내 땅, 내 조국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잊고 있는 신념 있는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작은 것에서부터 소중함을 알게 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 마을, 사회라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올곧은 심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의 독서 지원으로 만나는 문인들의 발자취

'펄S.벅' 작가와의 만남 ④

#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작가로서 인권실천가로서의 삶

## 작가의 삶

펄S.벅(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은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1892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태어나, 장로회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10년 대학을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1914년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열여덟 살 때까지 중국에서 자란 펄 벅에게는 중국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고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대지」(1931), 「아들들」(1932), 「분열된 일가」(1935)와 함께 3부작을 구성합니다. 1938년 미국의 여류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이 「대지」 3부작에 수여되었으며, 이후 대지는 퓰리처상도 수여되었습니다.

## ❄ 한국과의 인연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같은 나라다."*

펄 벅이 처음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맺게 된 때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의 OSS(전략사무국)에 중국 담당으로 들어온 때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전문으로 오게 된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펄 벅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김일한으로 하는데, 이는 유일한과의 인연을 중요히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10년대 남경 금릉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칠 때 한국 제자가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의 많은 인연을 토대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1964년에 사회복지 법인 한국 펄벅재단을 설립하였고, 1967년에 소사희망원을 건립하였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쓴 '살아있는 갈대'는 한국이 미개한 국가가 아니라 고도화된 정치적 문화적 체계를 갖춘 문명사회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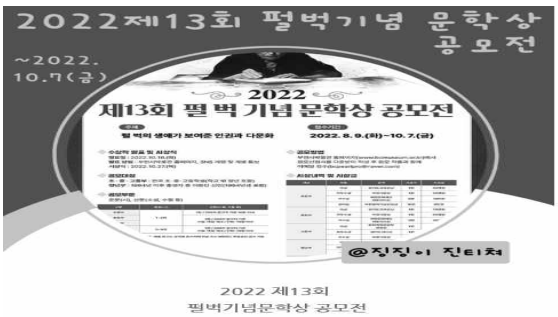
## 대표 작품

땅은 우리에겐 생명이 자라고, 뿌리내리는 근원이며, 가족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땅은 영원히 한곳에 있지만 계절에 따라 변하며, 땅은 하늘의 뜻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동양인들의 생각이, 항구가 개방되고, 서구의 시장경제가 유입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땅보다는 돈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부부도, 가족도, 친구도 다투게 하며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 지역 연계 독서자원

소설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펄벅 여사는 1967년 경기도 부천에서 한국의 다문화 아동을 위한 복지를 위해 소사희망원을 세웠습니다. 소사희망원은 현재 펄벅여사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펄벅여사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소사희망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직접 돌봤다고 합니다.

펄벅기념관




펄벅기념문학상공모전

펄벅문화축제

## 공유 메시지

노벨상 수상자인 펄벅여사가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한국에 보여준 애정과 봉사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실천적인 휴머니즘을 펼친 펄벅여사의 삶은 그의 작품만큼이나 감동을 자아냅니다. 세계에 팽배해 있는 자본주의가 더욱더 심화되고, 힘의 논리가 여전히 통용되는 상황에서 **펄벅여사의 인류애적인 삶의 태도는 교육적으로 충분히 알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 지역의 독서 자원으로 만나는 문인들의 발자취

'정지용' 작가와의 만남 ⑤

# 우리 마음 속의 고향, 그리움

## 작가의 삶

부천시 소사본동에는 정지용(1902~1950) 시인이 3년 동안 살았던 은거지 터가 있습니다. 시인이자 섬세한 이미지 구사와 언어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보여준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향수>, <비>, <인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향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지용은 1903년 충북 옥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930년대에 이미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당시의 시단을 대표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즉 정지용 시인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개척자라는 거물 평가를 받습니다. 당대 유명시인(청록파 시인 전부 포함)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들(윤동주 등)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으며, 절제된 어조와 이미지즘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 대표 작품 및 지역 연계 독서자원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이하생략>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부천에서 거주한 문학인! 정지용시인의 부천에서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행사를 찾아볼까요?

2022 부천예술찾기 美路(미로)

## 공유 메시지

우리나라 시문학에 강력한 발자욱을 남기고 있는 정지용 선생님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 애향심은 **오늘날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마음의 고향을 회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 독서토론수업, 교육과정을 품다

성주초 독서토론수업 사례 ① •••

# '그림책과 함께하는 토론 수업 이야기'

## 활동기획자의 의도

**수업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수업 속 토론 교육은 어떠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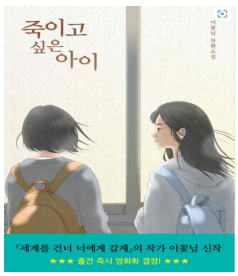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 속에서 '토론'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텍스트 속 토론 수업은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은 듯이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중요시 되고 있는 교육 현장 속에서 **초등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 수업**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접하는 책 속에서 논제를 선택하고 등장 인물에게 공감하며 독서와 토론을 즐길 수 있도록 수업을 만들어보았습니다.

## 활동내용

**첫번째 이야기 : 책을 통해 논쟁거리에 다가가기**

최근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사회적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주초 5학년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인기와 다양한 촉법소년들의 뉴스를 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향에서 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촉법소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소설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죽이고 싶은 아이', '괴물이 된 아이들' 등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 찬성과 반대 두 입장에서 참고자료 찾아보기**

자칫 초등학생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 하나를 정하면 또 다른 입장에서 논제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초 5학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입장에서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학교에 비치된 태블릿 pc와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때,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된 책을 학생이 직접 알아보고 책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면 '손으로 넘기며 즐기는 맛'을 느끼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야기 : 찬성과 반대 두 입장에서 논증게임 즐기기**

"이제 토론 시작!"

외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토론이 가능할까요?

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보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라니 직접 토론을 행하는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둠별로 주장에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유와 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정리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실제 토론을 하기 전까지 여러 모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보았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 학생이 만드는 토론 나누기**

토론에는 크게 토론자, 사회자(계측관), 판정단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사실 처음은 사회와 계측을 선생님이 진행하고 토론자와 판정단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교사로서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반 학생들이 사회자, 계측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교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사회, 계측 역할을 자원 받았고 학생들이 토론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였습니다. 오히려 학생이 만드는 토론 속에서 교사의 역할이 자유로워지며 다양한 역할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야기 : 학생들의 토론 펼치기**

이렇게 토론을 즐기게 하니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을 읽으며 챕터마다 논쟁거리를 찾아 함께 토론을 해보게 되었고 사회 수업 속 역사적 사건을 논쟁거리로 삼아 이야기를 펼쳐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토론을 수업 속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앞서 말했던 '정장'입은 것과 같은 토론 수업에서 학생이 만드는 토론 수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힌트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참고자료에서 벗어나 **학교도서관에서 참고자료를 찾아내는 재미를, 손으로 넘기는 맛을 느낀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드넓었습니다.**

수업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면 **그 소재로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의 상상이 녹아든 과거-현재-미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서토론수업, 교육과정을 품다

옥길중 독서토론수업 사례 ② ●●●

# '마주 보고 소통하는 옥길 독서 토론 교실'

## 활동기획자의 의도

국어 시간을 활용한 주 1회 독서 시간을 통해 한국 단편 소설 읽기를 진행하던 중 1940~1950년대 시대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인물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꺼삐딴 리(전광용)'를 학생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삶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며 학생들과 함께 소크라틱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 인물의 삶의 태도에 대한 토론 논제를 잡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총 4차시에 걸쳐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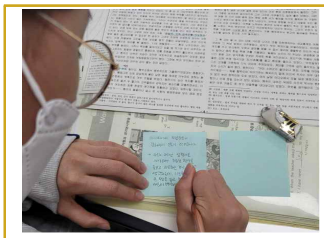
수업 과정 및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차시 | 수업 내용 | 시간 |
|---|---|---|
| 1 | - '꺼삐딴 리(전광용)' 작품 읽기 1 | 독서시간 |
| 2 | - '꺼삐딴 리(전광용)' 작품 읽기 2<br>- 작품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의 의미 찾기 | |
| 3 | - 소크라틱 세미나 (작품 속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이인국'의 삶의 태도, 가치관 파악하기) | |
| 4 | | |
| 5~6 | - 토론 실습 1<br>(토론 논제에 대한 모둠별 찬/반 정하고, 입론 세우기, 교차 질문하기) | 국어교과 |
| 7~8 | - 토론 실습 2(다른 입장의 모둠에게 반론하기, 최종 발언 말하기) | |

작품에 대한 독서를 시작할 때는 작품 속에 낯선 어휘가 많고, 작품 속 시공간이 자주 바뀌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고, 작품 자체에도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은 작품에 대해 3, 4차시에 소크라틱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작품 속 인물의 삶의 태도, 작가의 의도' 등을 자연스럽게 추측해 보았고, 많은 학생들이 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3학년의 경우 1학기 국어 수행평가의 하나로 총 10차시에 걸친 대립 토론이 과정 평가로 실시되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론의 기본 요소 및 진행 과정, 방법 등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서 후 작품 내용에 대한 소크라틱 세미나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인국 박사의 삶의 태도가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는 곧 학생들이 가치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논제가 되었습니다.

총 4차시에 걸친 토론 수업을 해 보니, 독서를 할 때는 흥미를 크게 보이지 않던 학생들 중 일부 학생이 토론을 할 때 매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 아니라 처음에는 신기하였으나, 토론 과정에 몰입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배움의 의미를 또 한 번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틱 세미나를 위한 질문 만들고 생각 쓰기

토론실습1-입론하기

토론실습2
-교차 질문 만들기

토론실습3
-최종 발언하기

##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문학 작품 읽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며 학생들의 생각과 경험의 폭을 넓혀 줍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진행하는 교실 토론은 학생들의 생각의 수준을 깊게 하는 것 같아요. 토론 활동은 **학생들의 두뇌 활동에 세찬 폭풍우**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폭풍우를 맞는 것처럼 몹시 긴장하고 힘들어하지만, 폭풍우가 그치면 맑고 개운해진 하늘을 보듯이 한결 정리된 생각으로 작품이 주는 여운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고 함께 말하는 교실독서토론은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말하며, 사고력, 표현력, 비판적 판단력 등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 독서토론수업, 교육과정을 품다

상동중 독서토론수업 사례 ③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

## 활동기획자의 의도

상동중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부천미래교육지구 학생중심 토론학교」를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독서교육과 토론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해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배움이 즐거운 교실 수업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학교평가 결과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독서토론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 특히 매년 12월 본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교육공동체대토론회'에서 학생들은 그 동안 실시해 온 독서토론교육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토론교육이 본교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활동내용

### 1. 책 읽는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학교교육활동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천혁신교육지구 학생중심 토론학교 선도학교」로서 국어, 사회, 도덕, 역사, 기술가정, 음악 등 다수의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독서토론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온 본교는 올해에도 '부천혁신교육지구 시즌 Ⅲ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토론 교육 및 인문 교과 융합 수업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사업을 통해 독서토론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경의 그림책『고슴도치X』를 활용한 소크라틱세미나를 통해 '자유(개성)와 통제'의 의미에 대해 독서토론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논제 공모를 하여 '교복 자율화(복장 자율화)를 실시해야 한다.'에 대해 논증게임, 토론실습, 3대3 찬반토론을 실시하는 교내 토론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실제 토론자와 학생 판정관을 포함한 44명의 학생, 5명의 교사, 학부모 판정단 2명이 참여하는 본 행사를 5월 16일, 7월 8일, 8월 24일, 9월 6일, 9월 15일 총 5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 실시하고 있는 '토론 한마당'은 토론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상동중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철학 동아리, 독서토론반, 역사사랑반, 도서반(샘터지기), 신문반 등 독서활성화 캠페인, 그림책 활용 수업, 주제별 세미나 등 독서교육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속하고 있습니다.

*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 및 진로 연계 독서활동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집에서 e-book 보기,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을 활용한 독후활동,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서비스를 활용한 독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내 걱정은 내가 할게』의 작가 최대호(2021년 5월 12일(수) 13:40), 신간 도서 전시,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독서기반 프로젝트

국어(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립니다), 사회(나도 작가), 수학(창의력업 수업독서반) 등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으로 독서 기반 수업을 실행. 특히 과학(나도 작가) 수업은 온라인 수업 우수 사례로 경인매일 9월 15일자 기사에 실렸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은 연계자유학년제 국어 수업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기본으로 한 학생중심 독서 활동 수업으로 '나도 기자(독서 신문 만들기), 나의 성장을 돕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실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화상회의와 구글클래스룸, EBS온라인클래스의 문서, 프레젠테이션, 패들렛, 댓글 작성 등의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독서토론을 하였고, 모둠 토론, 책놀이, 독서 영상 제작 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등의 교과에서는 독서활동을 수행평가에 반영합니다.

### 3. 공동체 독서역량강화를 위한 학교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삶에서 만나는 수업 성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독서교육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2021년 8월 말 전체 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 토론판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내 학생 독서토론한마당과 독서토론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10월 5일에 부천토론교육연구회원인 교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4.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천혁신교육지구 학생중심 토론학교 선도학교」로서 관내 선도학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네트워크의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토론 선도학교 운영 사례 발표와 자문을 해왔고, 올해에도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선도학교에 부천교육지원청 누리집 정보 플랫폼과 메신저를 통해 자문을 하거나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본교의 전 교감(이순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사(송상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천혁신교육지구 토론교육지원단으로 활동하였고, 부천시 토론교육연구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천혁신교육지구 청소년토론한마당에서 논제해설 원고 집필, 강의 및 판정을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부천혁신교육지구 청소년토론한마당」에 본교 학생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학년 3명 학생이 참가하여 '안면 인식 CCTV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최대호 작가와의 만남

2022학년도 학생 토론한마당

독서수업온라인수업자료(패들렛)

##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생중심 토론학교' 운영을 기반으로 독서교육을 실천해 온 덕분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수업,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독서토론교육을 올해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토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 독서토론수업, 교육과정을 품다

계남고 독서토론수업 사례 ④

# '(토동튱)토론으로 동행하고 소통하는 독서토론 활동'

## 활동기획자의 의도

**학생들은 현재의 시민으로서 민주시민의 일원입니다.** 독서토론은 학생들 간에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민주적으로 향상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합니다. 독서토론을 통해 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논리와 근거들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토론은 교육의 기본이며, 문화입니다.**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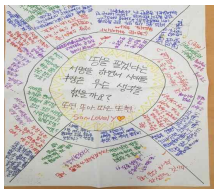
❋ **첫 번째 이야기: 학생의 토론학습 체험의 기회 확대**

| 프로그램 | 활 동 내 용 |
|---|---|
| **나선형 진로탐색프로그램** | ● 대상 : 1,2,3학년 전체<br>● 호시탐탐(1학년), 꿈사다리(2학년), 탄탄대로(3학년)<br>● 주제선정 ➜ 독서토론 ➜ 활동 보고서 작성 ➜ 주제별 발표 부스 운영 ➜ 토론 및 발표, 활동지 작성 |
| **지역사회 연계 민주시민토론교육** | ● 대상 : 2학년 전체<br>● 부천시민연합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역량 함양 교육 |
| **지역사회 연계 재능기부 봉사활동** | ● 대상 : 1,2,3학년 중 희망자<br>● 지역 사회 주최 독서토론한마당 PA 봉사활동<br>☞ 부천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독서토론한마당, 초등 독서토론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토론활동 판정 및 사회 |

❋ **두번째 이야기: 교과별 토론 수업 활성화**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등에서 토론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의 실천
- 토론 수업의 내용과 결과를 평가에 반영,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실천

<평가 반영의 예>

| 과 목 | 평가 내용 및 비율 | 관련 사진 |
|---|---|---|
| 화법과 작문 | 토론(15%) |  |
| 영어Ⅱ | 토론(10%) | |
| 생활과 윤리 | 일본어.인문과정 독서토론(10%)<br>자연과정 독서토론(20%) | |
| 경제 | 독서 토론(15%) | |
| 화학Ⅱ | 주제탐구토론(15%) | |
| 수학연습 Ⅰ | 수업참여도(15%) | |

❋ **세번째: 토동통창의지성 독서토론수업**

- 사제동행 독서-토론-글쓰기 활동, 방과후 창의지성 프로그램, 독서토론캠프, 민주시민을 위한 창의지성 토론대회 등을 통한 토론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 프로그램 | 활 동 내 용 |
|---|---|
| **방과후 창의지성 토론 수업** | ● 대상 : 1,2,3학년 희망자 40명 |
| **사제동행 독서-토론-글쓰기** | ● 대상 : 1,2,3학년 희망자 252명, 교사 중 희망자 27명 |
| **토동통 계수나무 독서토론캠프** | ● 대상 : 1,2학년 희망자 22팀 66명 |

사제동행 독서-토론-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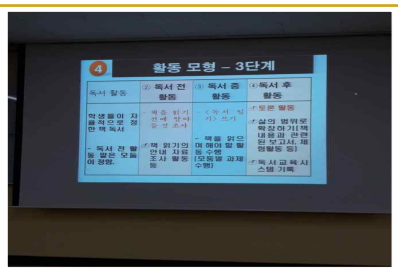
방과후 창의지성 토론 수업

독서 토론 캠프

❋ **네번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토론 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 학생중심토론학교의 비전과 철학 공유
- 가정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질문 및 토론 기법 실습

| 프로그램 | 활 동 내 용 |
|---|---|
| **학부모 토론 대학** | ● 대상 : 본교 1,2,3학년 학부모 중 희망자 20명<br>● 운영내용 : 학부모 대상 토론 교육 연수 운영<br>-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창비)' 발제<br>- 토론 교육 전문가 특강 실시<br>- 논증 구조, 찬반 토론의 실제, 토론 판정 원리 및 실제 |



학부모 토론 대학

##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대상과의 지적, 심적, 정서적 태도 등을 교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동안 이러한 과정에 잘 노출된다면 학생들의 인격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장면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내면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6년, 중등 6년의 교육과정에 책을 기반으로 한 **독서토론이 기본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다루어진다면 토론 문화가 일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역의 독서자원을 가꾸는 마음'

## 책읽는 도시 부천

**시민과 함께하는 이 운동은 부천시 모든 시민이 함께 책을 읽고, 교훈과 감동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지역과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며,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 도시 한 책읽기(One Book One City)'독서운동은 1998년 미국의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1년 시카고에서 '앵무새 죽이기'라는 한 책 읽기 운동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서의 물결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천시는 2005년부터 부천지역 작은 도서관 협의회와 함께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와 이해 속에서 매년 부천의 책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책으로 하나 되는 부천, 살고 싶은 도시 부천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일정 | 추진내용 |
|---|---|
| 2월 | 부천의 책 선포식: 부천 시민에 의해 선정된 올해의 부천의 책을 독서릴레이 첫 주자와 함께 모든 시민에게 알리는 행사<br>부천의 책 북 콘서트: 부천의 책 선정 작가를 초청하여 함께 나누는 책과 작가 이야기, 노래와 음악 공연 |
| 3월~11월 | 릴레이 독서 운동: 한 해 동안 부천의 책을 함께 읽기 위해 독서 릴레이 첫 주자(30명~100명)를 모집하여 12월까지 이웃, 가족,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돌려 읽는<br>범시민 책 읽기 사업 |
| 4월 10월 | 찾아가는 독서토론회: 관내 도서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부천의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토론활동 |
| 8월 | 청소년 토론스피치 캠프: 부천의 책을 주제로 읽기, 토론, 발표 등 책 읽기와 스피치를 통한 창의성 강화 프로그램<br>부천의 책 독서퀴즈: 부천의 책을 읽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책과 관련된 퀴즈로 도서관 자료실, 홈페이지에 게재 |
| 연중 | 청소년 토론스피치 캠프: 부천의 책을 주제로 읽기, 토론, 발표 등 책 읽기와 스피치를 통한 창의성 강화 프로그램 |

## 부천 문화 둘레길

★ 도시숲길: 목일신 공원-범안로 사진거리-웃고얀근린공원-카페거리-범박산 벚나무숲-역곡천-버들공원옥길저류지-버들공원-산들역사문화공원-가로수길

★ 마을이음길: 고강선사유적공원-(변종인신도비-삼변묘역-수주 변영로 선생 고향집터_-고리울동굴시장-고리울 가로공원-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부천제일시장 -수주어린이공원-고강들판

★ 소사내음길: 산골어린이공원-송내공원-손자나무-펄벅무지개길(펄벅기념관)-활터어린이공원-경원여객-정지용 향수길-느티나무-소사삼거리로

★ 원미마실길: 부천역마루광장-부천대학로-심곡천-소명여자중학교-석왕사-문학동산(원미공원)-원미산 정상-부천시립도서관-원미동사람들거리-원미종합시장-소신여객

##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각국 도시들이 연대해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유네스코가 2004년부터 세계 각국 도시를 심사해 창의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과거 공업도시이자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오늘날 문화도시로 성장한 데는 시민의 문학적 역량의 뒷받침이 컸다고 판단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천은 시 '논개'의 변영로 시인을 기리는 수주문학상 시상, 노벨문학상 수상작'대지'의 펄벅 여사를 기념하는 펄벅 문화축제, 부천 원미동 소시민의 생활상을 그린 양귀자 작가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 등의 문학적 자원이 있다. 특히 올해로 37회를 맞은 복사골예술제는 부천 문인들의 모임인 복사골문학회가 제안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자원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만화축제·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의 밑거름이 돼 부천을 오늘의 문화도시로 만들었습니다.

#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
# 지역과 만나다

1.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란
2. 교육시민으로서의 성장

##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란 ①

**토론은 개인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상호성과 문화 특수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제시한다.**

– 하버마스

##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란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은 2017년도 시작한 부천의 특색교육과제입니다.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는 학생 중심 토론학교선도학교 운영, 학생 독서 토론 한마당, 교사 토론 교육 및 학부모의 토론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지역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정책과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의 역량을 지닌 교육정책**
*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 **지역 민주시민성 개발을 위한 지역교육 정책 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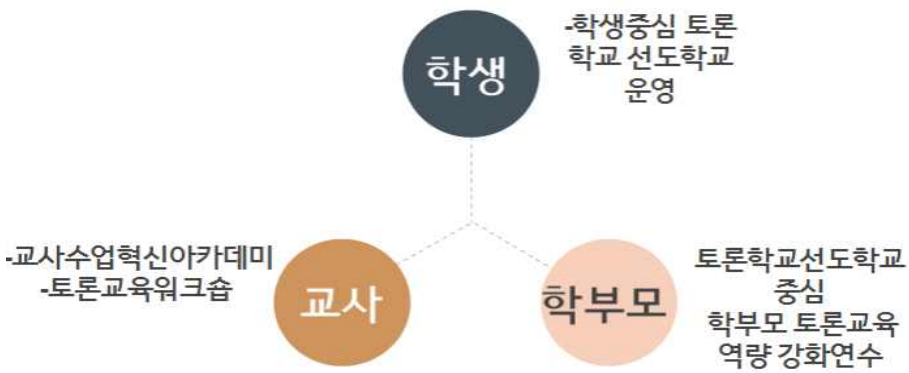
## 실천 내용

**1단계**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청-연구회 차원의 기회 제공 >>

**2단계**
**교육공동체 공동연구**를 위한 정책 마련 >>

**3단계**
**교육공동체 공동참여**를 통한 문제해결력 신장

**※ 1단계: 교육 3주체 토론역량 강화 방안**



## ※ 2단계: 교육공동체 공동연구

- 교사 수업혁신아카데미 네트워크 구축
- 6개권역 네트워크(45개교)
- 6~8회기 네트워크 주체별 나눔, 성장 협의회 실시

**교사**

**연구회**

- 사례나눔, 실습, 토론, 발표 등 실행 학습 중심 연수 운영
- 토론수업 나눔 및 비평, 토론수업 교사 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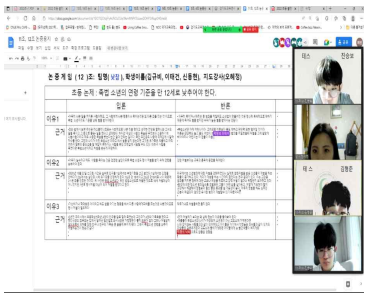
- 학생중심 토론교육과정 운영
- 토론동아리, 방과후 토론수업 운영
- 비판적 성찰 중심의 온책읽기

**학부모**

- 학부모 토론 수업 아카데미 운영
- 학부모 토론판정관 교육기부단 학습 동아리 운영

## ※ 3단계: 교육공동체 공동실천

### 2022 청소년 독서토론한마당



## 학생 중심 독서토론교육과정 운영-계남초

| 학년 | 도서명 | 토론 주제 및 학습 내용 | 수업방식 |
|---|---|---|---|
| 1학년 | 넌 (안) 작아(김소연/풀빛) | 서로 이해하고 행복한 소통, 편견 없애기 | 독서토의 |
| |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사계절) |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의 통일일까?<br>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은?) | 독서토의 |
| | 점(피터 레이놀즈/문학동네) | '점'하나 찍힌 그림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 회전목마토론 |

| 학년 | 도서명 | 토론 주제 및 학습 내용 | 수업방식 |
|---|---|---|---|
| 2학년 | 행복한 우리 가족<br>한성옥/문학동네 어린이 |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할까?<br>VS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 | 브레인라이팅 |
| | 프레드릭(레오리오니/시공 주니어) | 프레드릭의 행동은 존중받아야 할까?<br>육체적 노동 VS 정신적 노동 | 가치토론<br>찬반 토론 |
| 3학년 | 초코곰과젤리곰(얀케비/한솔수북) |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 월드카페 |
| | 슈퍼거북(유설화/책 읽는 곰) |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 인권이란? | 브레인라이팅 |
| | 마법사 똥맨(송언/창비) |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드는 방법 | PMI 토론 |
| | 마법의 설탕 두 조각<br>(미하엘 엔데/한길사) |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 월드카페 |
| 4학년 | 멀쩡한 이유정<br>(유은실/푸른숲 주니어) | 좋고 나쁨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 회전목마토론 |
| | 복수의 여신(송미경/창비) |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 소크라틱세미나 |
| | 마법사 똥맨(송언/창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방법?. | PMI 토론 |
| | 초록 고양이(위기철/사계절) |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 인권이란? | 비경쟁식토의토론 |
| | 혼자 남은 착한 왕<br>(이범재/계수나무) |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브레인라이팅 |
| 5학년 | 몽실 언니<br>(권정생/창작과 비평사)<br>**온책(작품)읽기 1** | 가난한 아버지를 버리고 새아버지와 결혼을 한 밀양댁의 태도는 옳은가? | 찬반토론 |
| | | 몽실은 새아버지를 떠나 친아버지와 살아야 하는가? | |
| | |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몽실의 삶은 바람직한가? | |
| | 샬롯의 거미줄<br>(엘윈브룩스화이트/시공주니어)<br>**온책(작품) 읽기 2** | 슬로우 리딩'의 이해와 자신의 경험 글쓰기 | 브레인라이팅<br>비경쟁식토의토론<br>찬반토론<br>회전목마토론 |
| | | 윌버를 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제안하기 | |
| | | 진정한 친구의 조건은 무엇일까? | |
| | | 누군가에게 별명을 붙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 |
| | | 샬롯의 결정은 어리석은가? | |
| 6학년 | 압록강은 흐른다<br>(이미륵/범우)<br>**온책(작품) 읽기** | 슬로우 리딩'의 이해와 자신의 경험 글쓰기 | |
| | | 친구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 토론하기 | 찬반토론 |
| | | 자신의 이름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
| | | 서당과 신학교의 장단점 토론하기 | 가치토론 |
| | | 한일 강제합병에 대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태도는 옳은가? | 찬반토론 |
| | | 소설 속의 시대적 풍경 묘사하기 | |
| | |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특징 비교하기 | |
| | | 학생의 신분으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은 옳은 일인가? | 찬반토론 |
| | | 가족을 한국에 남겨두고 유학을 떠나는 미륵의 결정은 옳은가? | 찬반토론 |
| | | 미륵의 입장이 되어서 한국에 있는 누님에게 답장을 쓰고 발표하기 | |

## 교육시민으로서의 성장 ②

# '앙가주망' 사회적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

– 샤르트르

샤르트르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적인 삶의 양식**으로 **'사회적 참여 (engagement)'를 강조**하였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 양식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자기해방을 도모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목적을 향해 나가기 위한 자기구속, '앙가주망'으로 규정합니다.

샤르트르가 주장한 앙가주망은 정치 행동이나 사회참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시대와 상황에 속박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유스러운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려는 방편입니다.

샤르트르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과 연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참여'가 민주시민으로서 보여줘야 할 존재 양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는 교육공동체의 **토론역량을 강화하여 비판적 성찰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신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민주 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부천옥길산들초,소사지구 토론수업 아카데미 교사역량강화 연수 실시

2022학년도 부천교육지원청 제5권역(소사지구) 토론교육 수업혁신아카데미 네크워크 중심학교인 옥길산들초등학교(교장 이미숙)는 지난 6일 본교 3층 스팀과학실에서 대면 방식의 「토론교육 수업혁신아카데미」 교사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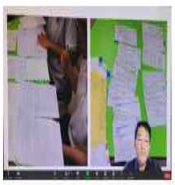
부천교육지원청, 학부모 대상 '토론교육 아카데미' 연수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학부모 대상 '토론교육 아카데미' 연수. (사진은 부천교육지원청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은 26~27일 이틀간 정백마루홀 5층에서 관내 초·중·고 학부모 24명을 대상으로 '2022 학부모 토론교육 아카데미 연수'를 실시한다.

토론교육 담당 교사 197명 역량 '업' 부천교육청, 수업 혁신 아카데미 실시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관내 초·중·고 교감과 학교 토론교육 담당교사, 연수 희망 교사 197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토론교육 네트워크 수업혁신 아카데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된 연수는 토론 중심 교육과정과 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교육도시 부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교육토론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명대 국어교육과 박재현 교수가 특강을 맡아다.

부천교육지원청, 초등 블렌디드 독서토론 한마당 개최

▲ 부천교육지원청, 초등 블렌디드 독서토론 한마당 개최

[부천타임즈=이광민 기자]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복)은 9월 17일(토), 24(토) 양일간 '2022 초등 블렌디드 독서토론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팀별 사전 공모하였다.

2022 초등 블렌디드 독서토론 한마당의 토론 논제는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어야 한다', 권장도서는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원작, 윤솔 지음, 고래의 숲, 2019)'(그림책), '죽이고 싶은 아이'(이꽃님 지음, 우리학교, 2021)', '괴물이 된 아이들'(강미 외 지음, 넥서스, 2022)' 이었다.

## 공유 메시지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는 부천미래교육지구의 핵심인 '지역'과 함께하는 민주 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토론문화를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토론 논제 공모전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론은 결국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동체의 생각들을 수렴하면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는 장치이며, 학생들이 이러한 **토론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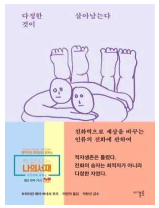
# 지역에서 불어오는 생생한 교육메세지를 담다

1. 학생, 학부모 책이야기
2. 자기 서사가 있는 독서토론
3. 독서인문자원과 교육과정의 만남
4. 지역의 인문자원이 갖는 문화의 힘

# 바쁜 일상속에서도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책추천

## 친절함이 가져온 진보와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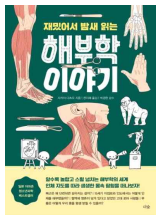
**원미고등학교 2학년 유찬희**




지은이는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아마 2019년까지 친화력과 생명의 진화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기에, 그 동안의 연구로 진화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비인간화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책은 여태까지 제시해왔던 적자생존과는 달리 우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나는 이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노력하는 우자생존'이다. 그 이유는, 자기가축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친화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비인간화, 차별이라는 부산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기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자생존은 진정한 협력적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써 완성이 된다. 결국 '노력하는 우자생존'이 진보의 열쇠인 것이다.

## 친해부학, 복잡하고 정교한 인체 이해하기

**원미고등학교 2학년 이소은**




해부학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한 많은 분들의 선의 덕분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인체 해부라는 엄숙한 행위를 통해, 몸의 내부를 잘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발전에 힘써야 한다. 앞선 분들의 선의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재밌어서 밤새 읽는 해부학 이야기' 의학 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해부학을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쉽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해부학에 관심이 있는 어린 학생부터, 해부학 실습을 앞두고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비하려는 학생까지 다양한 독자층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여러 윤리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필수적이었는지 궁금하다면 어서 이 책을 펴봤으면 좋겠다.

## 아인슈타인도 부정한 괴상한 천체, 블랙홀

**원미고등학교 2학년 조윤찬**

우종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우리가 점차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의 무대는 더이상 지구가 아닌 우주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주에 대한 지식의 필요도는 점차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우주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우종학 교수는 블랙홀과 같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들로 우주에 익숙해지면, 점점 우주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종학 교수의 블랙홀 강의'는 흥미로운 주제인 블랙홀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우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싶거나, 우주가 궁금하지만 어려워 보여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AI지식, 꿈에 다가서는 첫 걸음

**원미고등학교 2학년 이창준**

나는 미래 사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이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딥러닝'이다. 딥러닝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기법이다. 딥러닝이 개발되고 이 기술을 접목한 분야는 기술적, 서비스의 질이 월등히 상승하게 되었다. 음성인식 기술을 예로 들면,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프로그램이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딥러닝을 도입한 후로 막대한 양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하여 지금의 빅스비와 시리처럼 높은 수준의 인식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딥러닝 접목 사례를 읽으며 놀라운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딥러닝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 책을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준 만큼 중학생 수준의 독서 능력을 갖추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랑을 품은 책사랑 이야기

원미고등학교 학부모 이영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자녀들이 독서를 했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독서를 통해 소통하고 견문을 넓혀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자기 의지대로 책 읽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책 읽기가 의지대로 잘 안되었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학교의 소개로 부천시청의 학부모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책도 지원받았습니다. 야호!! 부천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시립도서관은 물론 작은도서관 등, 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많고, 찾아보면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도 풍성하다는 점입니다. 부천의 장점 중 장점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 고른 책이 오은영의 <화해>, 다 같이 선정한 책을 함께 읽고, 교감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토론에 참여도 하며,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과 위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서로 울컥울컥할 정도로 진심 어린 위로를 나누기도 하고, 토론 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아~저런 생각도 하실 수 있구나' 하고 감동과 배움도 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책사랑> 동아리 분들 모두가 감동의 물결을 함께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님, 선생님들과도 어색함 없이 편해지고, 끈끈해지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독서동아리 활동에서 느꼈던 좋은 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마음에 드는 책을 선정하여, 공유하고, 풍성하게 1년 동안 즐겁게 활동하였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도 지원사업이 많은데, 과거 2018년도부터 학부모토론아카데미가 생겨, 여기에 참여한 이후 토론에 재미도 느끼고, 중요성도 인식하고, 저 또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였는데 말이지요. 저의 아이 또한 <토마토 토론학교>에 참여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천은 책 읽는 도시!! 문화가 풍성한 도시!! 토론하는 도시!! 의 슬로건에 딱 맞는 사랑스런 도시입니다.

## 자기 서사가 있는 독서토론

–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원미고등학교 교감 김진익

● **학업 동기를 키우는 두 가지 힘! 질문, 비판적 사고**

다양한 질문이 허용되는 교실은 배움에 관한 학생의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질문이 허용될 때, 배움의 과정에서 성취감이 생기고, 나아가 배움을 즐기는 학생이 나오게 된다. 콜버트(1987)의 연구에 의하면 '토론 훈련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비판적 사고 점수를 받았다' 고 합니다. 토론 교육은 비판적 사고, 호기심, 스스로 질문, 상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 **배움을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독서와 토론**

콜리어(2003)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토론을 한 학생들은 토론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한 학년 동안 독해력이 25% 더 빨리 발전' 했다고 합니다. 독서와 토론은 학생의 배움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 두 개의 바퀴인 셈입니다. 토론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 **자기 서사의 동력: 독서와 토론**

인간은 자기 삶을 이야기로 파악하는 존재입니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토론과 독서의 경험을 물어보면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학생이 자신이 정한 목표까지 도달하면 영웅 서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하나 더 가진 지혜로운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결코 무력한 존재가 되지는 않는 것, 그것이 독서와 토론이 만들어내는 자기 서사가 아닐까요?.

● **자기 생각을 꺼내고 키우는 독서토론교육의 로드맵을 만들면 어떨까?**

독서와 토론을 통해 학생은 남의 생각과 지식을 담는 수동적 학습을 탈피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꺼내는 학습활동을 펼칠 방법이 토론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새롭게 적용해 보거나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집단지성의 지혜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이것이 토론교육도시부천프로젝트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교육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기반 독서 인문자원과 교육과정의 만남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복**

한 지역에 오래도록 정주하다 보면 지역의 촘촘한 네트워크망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깊고 넓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로서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 망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어떻게 교육적인 관점으로 재구성, 또는 전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자연스레 해봅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곧 그 지역 공동체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린 속도로 바라보면서 사색하고 음미하며 곱씹어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교육은 그 속성 자체가 느리고 사색적이며 또한 미래지향적입니다. 부천교육 역시 오래도록 다져지고 축적된 역량들이 교육공동체를 통해 공유되고 면면히 승계되고 있습니다. 부천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로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이 풍부한 도시이며 그 문화 자원들이 연결되어 국제 만화 축제, 문학제, 영화제, 예술제, 로보파크 페스티벌 등으로 꽃 피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지역의 문화 자원을 충분히 학교교육활동으로 재구성하여 그 활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솔솔~ 독서바람 열두번째 이야기에 부천의 독서·인문교육 이야기가 함께 공유되는 것에 더없이 기쁩니다. 부천의 학생들은 지역의 독서 자원으로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독서 토론 수업으로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연계는 점점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교육을 위한 지역의 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심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의 인문자원이 갖는 문화의 힘을 공유한다는 것은...

**교육을 사랑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황진희**

인간 정신이 깃든 문화가 승계된다는 것은 단순한 연결과 이어받기가 아닌 사람들의 내면과 사고의 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크고 깊게 스밉니다. 학교 다닐 적에 동무들과 재잘대듯 불렀던 노래말이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입니다.

이 노래말의 주인공이 우리 부천 지역에서 작고하신 목일신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학창시절에 지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 초등학교 음악책에서 오래도록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천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창의도시(문학도시)로 지정되는데 목일신 선생님, 펄벅여사, 변영로, 원미동사람들의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한 지역이 품고 있는 인문 자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정서적 풍요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옛것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와 깃들여 있는 의미를 서로 나누며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자원에 담긴 메시지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긍정적 신호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이라고 말씀하신 김구선생님처럼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을 지역의 길섶에서 찾아간다면, 가장 지역적인 콘텐츠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씨앗을 심어가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늘 행복한 교육으로 가득한 나날되시길 기원드립니다.